

위기의 정해영 ... “시간이 약이다”

3경기 나와 3이닝 3실점 홈런도 2개나 맞아 “직구 조금씩 좋아질 것”



시간이 약이 될까? KIA 타이거즈 마무리 정해영이 마운드에서 답을 찾고 있다. KIA는 올 시즌을 앞두고 뒷문 고민을 했었다. 마무리 정해영의 페이스 상승세가 더

되면서 플랜B도 마련했다.

예초 우려대로 정해영의 1주일은 쉽지 않았다.

2일 SSG와의 시즌 2차전을 시작으로 8-9일 두산전 세 경기에서 3이닝 3실점, 9.0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8일 고종욱의 끝내기 안타로 승리투수가 됐지만 9회초 김재환에게 동점 투런을 맞으면서 시즌 첫 불펜세이브를 남기기도 했다. 정해영은 첫 등판에서도 SSG 최정에게 홈런을 내줬다.

KIA는 믿음으로 정해영을 지켜보고 있다. 나이는 어리지만 마무리로 67세이브를 수확한 정해영이 뒷문을 책임여주는 게 KIA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정해영은 2021시즌 KBO리그 최연소 30세이브를 달성하는 등 9위 팀에서 34세이브를 장식했고 지난해에도 32개의 세이브를 더했다.

우려의 시선에도 긍정적인 신호는 있다.

정해영은 지난 9일 두산전에서 2루수 실책에 이어 허경민에게 우전 안타를 맞으면서 1사 1-3루에 몰렸지만 양석환을 상대로 유격수 땅볼을 유도하면서 병살타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2-3으로 뒤지던 상황이지만 실책으로 맞은 위기에서 침착한 승부로 실점을 막았다.

전력분석팀에서도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밸런스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고 있으니 보완하고 있다. 시즌 초에는 컨디션이 떨어져 있었고, 작년과 비교하면 기술적인 부분에



서도 다른 게 있었는데 조금씩 바뀌고 있다. 서서히 올라올 것 같다”며 “본인도 숙직하고 있고 스피드도 138km 나오던 게 141~142km로 올라오고 있다”고 긍정적인 흐름을 이야기했다.

KIA를 대표하는 투수이자 해설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윤석민은 ‘타이밍’을 꼽았다.

그는 “정해영은 공격적 피칭을 하는 선수다. 그게 장점이고, 직구의 힘이 좋아 타자들이 타이밍이 늦거나 파울이 난다. 실투가 예전보다 더 맞고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좋은 선수가 되려면 자주 발전해야 한다. 그런 시기가 온 것 같다”며 “타자들이 어느 정도 정해영의 볼에 익숙해지는 시기가 온 것

이다. 예전보다 공이 조금 더 물리는 것도 보인다. 변화를 줘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정해영 스타일 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타이밍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윤석민은 “직구가 주무기다. 볼 끝이 좋아서 파울 낫는데 그게 중심에 맞는 모습이다. 타자들 눈에 익었다든지, 힘이 떨어지거나, 몰려서 그럴 수도 있다. 구석 구석 스트라이크로 들어가면 타자가 치기 어렵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며 “어렵게 가지 말고 타이밍 싸움을 하면 좋겠다. 사인보고 던지는

게 일정하다. 잘 될 때는 조절할 필요 없는데 지금은 좋지 않으니 하나 둘 셋에 던지고, 둘에 던지고, 다섯에 던지는 등 타이밍만 조절해도 타자들의 호흡을 뺏을 수 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다른 부분은 말은 쉬운데 어렵다. 야구는 타이밍 싸움이다”라며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을 보냈다.

정해영은 ‘좋았던 기억’으로 답을 찾아가고 있다.

정해영은 “공 던지는 느낌이 아직까지 좋지 않다. 그 전부터 틀어 잡혀서 시즌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원인을 잘 모르겠다”며 “일단 (양)현종 선배님이 지금은 좋았을 때 영상을 계속 보라고 이야기해주셨다. 눈으로 보고 머리에 입력되니까 계속

좋았을 때 영상을 보고 있다. 동영상 보면 그 느낌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해영은 시즌 전 “하면 할수록 책임감이 생긴다. 더 열심히 하게 된다. 마무리 자리가 확실한 건 아니다. 2-3년은 더 해야 내 자리라고 느낄 것 같다”며 “결정구를 확실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직구가 안 올라와서 직구를 먼저 끌어 올려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직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정답은 직구에 있다. 정해영이 시간이라는 약을 통해 최연소 100세이브를 향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승리·로테이션 ‘두 토끼’ 사냥

오늘 부산과 FA컵 3라운드

광주FC가 ‘승리’와 ‘로테이션’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광주가 12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2023 하나원큐 FA컵 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홈 3연승에 도전하는 무대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의 K리그 1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강팀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패기의 승부를 하면서 광주 스타일대로 포항을 공략했지만 ‘철벽’ 수비에

막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광주가 다시 승리를 위해 달린다. 바쁜 한 주가 광주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는 오는 16일 오후 7시 대구FC와의 원정경기에 나선다. 리그 경기에 앞서 12일에는 부산을 상대로 FA컵 경기도 소화해야 한다.

광주는 이번 부산전을 통해 로테이션을 통한 체력 안배와 주전 경쟁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부산전 이후 광주는 대구 원정(16일)에 이어 강원(23일)-제주(26일)와의 홈 2연전, 30일에 진행될 울산 원정까지 땀땀 스케줄을 앞두고 있

다. 초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컨디션 관리가 필요하다. 컨디션 유지를 위해 로테이션은 필수다.

총총해진 스쿼드 덕분에 로테이션도 수월하다. 지난 시즌부터 함께한 이준, 이건희, 김재봉, 아론, 김승우 등 기존 선수들의 호흡이 적적 맞고 오 후성과 김한길, 이강현, 정지훈 등 ‘새 얼굴’들도 교체 출전을 통해 광주 색을 익혀가고 있다. 신장무, 김동국 등 광주 데뷔를 기다리는 선수들도 있다.

1부 무대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선수들에게 이번 부산전은 확실한 어필 무대가 될 전망이다. 그 만큼 부산전 출격을 기다리는 선수들의 각오가 남다르다.

FA컵에서 만나는 부산은 지난 해 K리그2 10위로 부진했지만, 올 시즌에는 3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며 3위에 올라있다.

라마스, 이한도, 정원진, 구상민 등 경험 많은 베테랑 선수들과 함께 조위제, 권혁규, 박정인 등 패기 넘치는 젊은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부산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광주 자신감은 남진다.

1년 만에 돌아온 1부리그에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전적에서도 부산에 앞선다.

지난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챙기는 등 광주가 역대 전적에서 9승 10무 4패로 앞서 있다. 또 홈에서 진행되는 경기인만큼 공격적인 축구로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광주가 포항전 아쉬움을 딛고 인천-수원FC전 승리를 이어 홈 3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12일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홈에서 FA컵 3라운드 경기를 갖고 승리와 로테이션을 동시에 노린다. 광주 새 얼굴인 정지훈이 지난 1일 수원FC전와의 홈경기에서 수비수와 공을 다투는 모습. <광주FC 제공>

최지만, 피츠버그 이적 후 첫 홈런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는 최지만이 2023시즌 첫 손맛을 봤다.

최지만은 11일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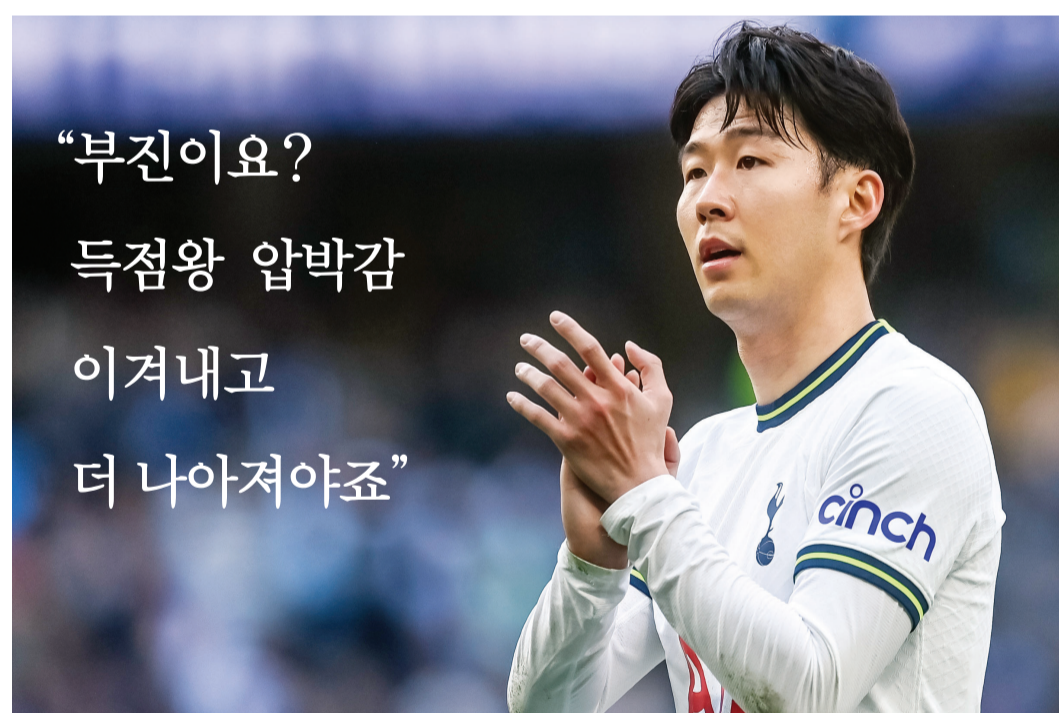
경기에서 2회말 홈런을 터트렸다.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최지만은 0-4로 끌려가던 2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휴스턴 원수 투수 프랑코 발데스와 폴카운트 대결을 벌인 끝에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2스트라이크에 몰렸던 최지만은 끈질기게 볼을 골라냈고, 7구째 시속 94.9마일(약 153km)의 빠른 공을 공략해 비거리 124m짜리 타구를 만들었다.

최지만의 피츠버그 이적 후 첫 번째 홈런이다.

최지만은 이날 경기 전까지 시즌 6경기에서 타율 0.053(19타수 1안타)의 타격 부진을 겪고 있었다. /연합뉴스



“부진이요? 득점왕 압박감 이겨내고 더 나아져야죠”

EPL 통산 100호 골 ... 손흥민의 다짐

“부진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통산 100호 골을 넣은 손흥민(토트넘)이 ‘득점왕의 압박감’을 이겨내고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했다.

손흥민은 10일 (한국시간)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와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은 환상적이었다. 득점왕을 차지한 것은 나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준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손흥민 득점왕’이라며 나에게 또 다른 엄청난 활약을 기대했다. 하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 더 많은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23골을 넣어 무함마드 살라흐와 함께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올 시즌 득점 페이스가 확 죽었다.

전반기에는 리그 3골을 넣는 데 그쳤다. 후반기 들어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7골을 기록 중이다.

지난 주말 브라이턴과 경기에서 넣은 7호 골은 그의 EPL 통산 100호 골이기도 하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 오른 고지다.

손흥민은 약해진 득점력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그는 “변명하자면 많은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난 ‘그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며 변명하는 타입이 아니”라면서 “내가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난 압박감을 좋아하는, 아직 완벽하지 못한 선수다. 아직 발전할 수 있다”면서 “마지막 리그 8경기는 나와 팀에 매우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라이턴전에서 골을 넣은 것처럼) 여전히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고, 더 나은 플레이를 펼치고 싶으며, 득점에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방법으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16승 5무 9패로 리그 5위(승점 53)에 자리해 있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권이 주어지는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56)와 격차는 승점 3이다.

6위와 격차는 승점 6으로 벌어졌다. 애스턴 빌라(승점 47)가 브라이턴(승점 46)을 제치고 6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EPL에서 100골을 달성한 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점 3점을 얻은 것”이라며 “브라이턴은 순위표에서 우리 바로 아래에 있는 팀이다. 브라이턴전 승리의 의미는 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